

2020학년도 제5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2시

2. 장 소 : 본관 3층 제1회의실

3. 참석자

- 의장 : 박송인
- 의원 : 이미혜, 박현영, 이제호, 민경진, 박효정, 권승길, 황선희 (이상 8명)
- 참관 : 김완기 기획처장
- 간사 : 이선진

4. 불참자

- 의원 : 이길윤, 김기목, 김옥선 (이상 3명)

5. 심의안건 및 결과

호안	안건내용	결과
1	전차회의록 상정	원안가결
2-1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_2021학년도 학위종별표	원안가결
2-2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_2022학년도 학위종별표 / 학사구조개편(안)	원안가결 (의견제시)
3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	원안가결 (의견제시)



6. 대학평의위원회 의견

가.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한 의견

- 신학과 학과경쟁력 및 신입생충원을 지표 등을 위해 신학과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함
- 신설학과인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소속을 신학대학에 두는 것은 부적절함
-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에 투입되는 인력 및 인프라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신설 부적절함

나.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중장기발전계획 개정 및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변경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인재상의 키워드 중에서 “영성”이 핵심역량에 표현되어야 할 것임

간서명			민경진
-----	---	--	-----

7. 회의내용

박승인 의장 :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총 11명 중 8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박승인 의장 : 제1호 안건 전자회의록을 상정함. [회의자료 참고]

박승인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1호 안건 전자회의록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권승길 의원 : 동의함.

이미혜 의원 : 재청함.

박승인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박승인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인 의장 : 제1호 전자회의록 상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박승인 의장 : 제2호 안건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함. 학칙 개정(안)은 2021학년도 학위종별표와 학사구조개편이 포함되어 있는 2022학년도 학위종별표를 나누어서 심의하고 각각 동의 재청을 요구하도록 하겠음.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부탁함. [회의자료 참고]

김완기 처장 : 2021학년도 융복합전공 중 관광디자인트랙, 문화예술복지전문가트랙은 폐지하고, 법무인재양성트랙은 신설하고자 함. 이는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임.

권승길 의원 : 법무인재양성 트랙에 대해 질문함.

박승인 의장 :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학 및 행정학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도시개발행정학과에 법학 전공 교수님이 계셔서 융복합전공 운영이 수월할 것이라 사료됨.

박승인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2호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안건 중 2021학년도 학위종별표 개정(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박현영 의원 : 동의함.

이제호 의원 : 재청함.




박승인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박승인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인 의장 : 제2호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_2021학년도 학위종별표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박승인 의장 :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_2022학년도 학위종별표 관련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해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부탁함. [회의자료 참고]

간서명			
-----	---	---	---

- 김완기 처장 :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음. 대외협력처 입학홍보과에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처로 학사구조개편개편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기획처에서는 학사구조개편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음.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의 주요 정량지표인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분반현황과 정년퇴직의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제시하였음. 그동안 단과대학장과 학과장 및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평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요구함.
- 민경진 학생 : 2022학년도 신학대학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는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입학대상자 등 전체적인 학과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김완기 처장 : 정식 학과명은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이지만, 에이블아트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음악과 미술에 대한 전공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임.
- 민경진 학생 : 음악과 미술학과 이면 예술대학에 학과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함.
- 김완기 처장 : 수원시에 있는 에이블아트센터에서 우리대학에 최초로 학과 신설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며, 신학대학에서 신입학 미충원을 해결하고자 에이블아트학과에 대해 검토하였음.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창학이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정원외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SWOT 분석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학과 신설을 진행하였음.
- 민경진 학생 : 총학생회에서는 학사구조개편에 대해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설문 참여 학생 중 거의 절반이 불만 혹은 매우불만 의견을 나타내었음.
- 김완기 처장 :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을 수립할 당시, 신학대학에서는 ‘크리스천미디어콘텐츠학과’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신학대학은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역자를 양성하는 ‘크리스천미디어콘텐츠학과’ 신설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가 제시되었음.
- 권승길 의원 :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학위명이 현재 예술학사/체육학사로 되어있음. 우리대학에 예술대학이 있으므로, 예술대학으로 신설학과를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또한, 신학대학내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신학과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감축한 인원을 경쟁력 있는 타 학과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박현영 의원 : 학칙은 평의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평의원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박승인 의장 : 간사는 금일 회의에서 제시된 발언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기획처장님은 법인이사회에서 평의원의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구함.
- 황선희 의원 : 에이블아트센터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를 두는 것은 학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결국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교육과정은 신학대학 보다는 예술대학과의 연계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예술대학으로 이동하고 신학 등의 학문을 함께 교육되어 지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간서명			
-----	---	--	---

권승길 의원 : 모두를 만족시키는 학사구조개편은 어렵다고 생각함. 그러나 학습의 주체가 되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김완기 처장 : 신설학과 TFT를 구성하였음. 법인이사회에서 학사구조개편이 통과 되는대로 TFT가 위원들이 모여서 신설학과가 우리대학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교육과정 등을 준비할 예정임. 학과 신설(안)을 수립하기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나사렛 대학 등 타 대학 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음.

박현영 의원 : 나사렛 대학은 장애인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가 장애인 학생을 위해 잘 구축 되어 있음. 우리 대학의 경우,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 되어야할 재정 및 인력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사료됨.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보다 신학과에서 제안했던 '크리스천미디어콘텐츠학과'가 더 적합한 개편이라 사료됨.

박현영 의원 : 또한, 신설학과와 정원외 수입보다 신학과에서 정원내 미충원으로 인한 손실이 더 충격적인 것임. 신학과 정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함.

김완기 처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리스천미디어콘텐츠학과'는 목회자가 아닌 사역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는 우리대학이 미션스쿨로서, 창학이념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를 신설(안)을 수립하였음.

권승길 의원 : 현재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 이외의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신학과 입학정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신학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전액 장학금 혜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학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신학과 미충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함. 또한,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를 신학대학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예술대학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황선희 의원 : 첨언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목회자 양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함. 다음에 학사구조개편을 다시 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음. 신학대학에서 미션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미 교회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함.

박승인 의장 :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를 신학대학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견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구함.

권승길 의원 : 동의함.

황선희 의원 : 재청함.

간서명			민경진
-----	---	--	-----

박승인 의원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혜 의원 : 반대함.

이미혜 의원 :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관은 장애인 시설이 전무하여 예술대학에 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우리대학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웨슬리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예술관보다는 좋을 것이며, 무엇보다 건학이념을 고려하였으므로 신학대학에 두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박승인 의장 : 과반수 찬성으로 평의원회 의견은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를 신학대학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로 정리되었음.

박승인 의장 :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요구함.

권승길 의원 : 음악학부를 신설한 사유를 질문함. 학부와 학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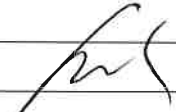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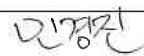
김완기 처장 :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탈출구로서, 학부 내 학과의 미충원 발생시, 신입생을 유동적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학부제를 신설하였음.

이미혜 의원 : 학부제 신설에 대해 예술대학 내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이 학부제를 선호하였음.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미충원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음악관련 학과들의 커리큘럼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또한, 학부제를 운영하게 되면, 학과장 보직을 줄이게 되어 대학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이전에 음악학부를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부제를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재호 의원 : 음악학부제 운영으로 학부내 학과 미충원 시, 타학과에서 미충원 인원을 대신 충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된 문제는 대교협에 잘 알아본 이후에 시행해야 할 것임.

박현영 의원 : 신학과 학사구조개편에 대해서 이것으로 통과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어 다시 한번 거론함. 평의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학사구조개편에 신학과 입학정원 감축을 분명히 제안함. 평의원회에서 결의되지 않는다면 별지를 붙여 의견 상정 제안함. 신학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이 하위 지표를 유지하고 있었고, 금년에도 현재 신입생모집에서 40명이 미달되었으며, 또한, 이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추가모집에 대한 학칙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와 정원의 25명 추가보다 정원내 신입생을 충원하는 못하는 것이 학교 평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시킬 것임. 즉,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신설은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른 계획이라면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분명할 것이며, 신설학과와는 별개로 신학과 입학정원 감축은 필수사항임.

김완기 처장 : 에이블아트학과에 대해서 3가지 고려사항을 두었음. 첫째, 선발에 대한 부분, 둘째, 교수학습에 대한 부분, 셋째 시설설비에 대한 부분이었음.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서 우리대학은 2011년에 30점 정도를 받았었으나, 2015년에는 50점대, 2020년에는 73점까지 점수를 끌어올린바가 있음. 저 역시 에이블아트·스포

간서명			
-----	---	--	---

초학과의 인프라 구축이 난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학과를 신설하기 앞서 TFT와 여러 차례 이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TFT와 논의할 예정임.

권승길 의원 : 학과 명칭 변경을 시행한 사유를 질문함. 일부 학과는 학과 분리를 시행하였고, 일부 학과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음.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질문함.

김완기 처장 : 이번 학사구조개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주기 기본역량진단의 정량지표인 재학생총원율, 신입생총원율, 취업률을 가지고 학과의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과의 요구를 분석하였음. 2017년 학사구조개편에서 통폐합되었던 학과의 전후 정량지표 및 이탈률 등을 분석하는 한편, 학과의 요구까지 반영하여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음.

권승길 의원 : 학과 명칭변경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만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학생들의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함.

박현영 의원 : 중국통상문화학과는 중국어문화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는데, 미주통상문화학과는 글로벌통상문화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음. 사유를 질문함.

김완기 처장 : 미주통상문화학과 학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과내에서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결정된 학과명으로 알고 있음.

권승길 의원 : 학사구조개편 자료를 검토하면, 교원 총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음. 대학의 교원 총원 계획을 질문함.

김완기 처장 :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전임교원확보율이 15점 배점으로 상당히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3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3차 교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음.

권승길 의원 : 연차별 교원 수급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함.

김완기 처장 : 정년직 교원과 비정년직 교원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채용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임.

권승길 의원 : 학습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원을 채용해야 하며, 이는 결국 재학생총원율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김완기 처장 : 권승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박승인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2호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안건 중 2022학년도 학위종별표 개정(안)/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권승길 의원 : 동의함.

이미혜 의원 : 재청함.

박승인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박승인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하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민정원
-----	---	--	-----

박승인 의장 : 제2호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2022학년도 학위종별표 개정(안) / 2022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이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박승인 의장 : 제3호 안건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을 상정함.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부탁함.
[회의자료 참고]

김완기 처장 :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며, 우리대학의 현재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UHS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을 집필하였음.

박현영 의원 :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에 대해 2가지 의견을 제안함. 우선, 중장기발전계획의 개정 및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변경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다행히 총장님께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신임 총장님의 우리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미래 추진 의지 등으로 커버하는 방법으로 제안함.

박현영 의원 : 또한, 우리대학 인재상이 「인성, 영성, 지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으로 변경되었고, 핵심역량도 일부 변경됨. 6개의 핵심역량에서 5개 역량은 개정 전과 매칭 및 내용적으로 녹아져 있으나, ‘영성’이 언급되지 않음. ‘영성’은 우리대학의 인재상에도 제시된 기본 키워드인 만큼 핵심역량에도 명확히 표현되어야 할 것임.

이선진 간사 : 현재 개정되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발간사와 개정사가 동시에 게시될 예정이며, 개정사에 중장기발전계획 개정 사유가 포함될 예정임.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 집필이 완료되는 대로 평의원분들께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음.

박현영 의원 : ‘도서관 발전계획’이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함.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도서관 계획이 기술되어 있으면 대학도서관 통계 및 평가에 반영됨. 현 발전계획서에는 ‘독서와 글쓰기 센터’가 비교과프로그램의 일부로 기술되어진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발전계획서에 사용할 수 없음.

박승인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권승길 의원 : 동의함.

박현영 의원 : 재청함.

박승인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박승인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인 의장 : 제3호 중장기발전계획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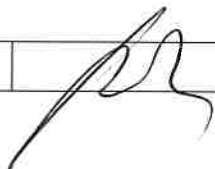

박승인 의장 : 회의록 간서명인을 정해야 할 것임.

권승길 의원 : 박승인 의장님, 이제호 의원님, 민경진 의원님을 추천함.

박현영 의원 :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간서명을 하도록 하겠음.

박승인 의장 : 간서명인을 의장과, 박현영 의원님, 민경진 의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음.

박승인 의장 : 폐회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간서명			민경진
-----	---	--	-----

황선희 의원 : 동의함.

이제호 의원 : 재청함.

박승인 의장 : 2020-5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함.

- 폐회 오후 4시 -

의 장 :

박 승 인 (인)

의 원 :

이 미 혜 (인)

박 현 영 (인)

이 제 호 (인)

민 경 진 (인)

박 호 정 (인)

권 승 길 (인)

황 선희 (인)